렉서스, 전동화 전환 속도 낸다

첫 순수 전기차 'UX 300e'·첫 PHEV '뉴 제너레이션 NX' 사전계약 돌입
UX 300e, 도심형 컴팩트 SUV·1회 충전으로 233㎞ 주행 가능 5490만원
뉴 제너레이션 NX, 450h+·350h 등 4개 트림…버튼식 개폐 시스템 적용

렉서스코리아가 자사 최초 순수 전기차와 자사 최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을 선보이면서 렉서스의 전동화 전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렉서스 최초 순수 전기차인 'UX 300e'와 렉서스 최초 PHEV 모델 '뉴 제너레이션 NX'의 사전계약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하이브리드차에 주력하던 렉서스가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렉서스 최초의 순수 전기차 'UX 300e'=렉서스코리아는 16일 도심형 컴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UX 300e'와 '뉴 제너레이션 NX 450h+', 'NX 350h'를 다음달 15일 공식 출시하고, 이날부터 사전계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렉서스 최초의 순수 전기차인 UX 300e는 '크리에이티브 어반 익스플로러'(Creative Urban Explorer)라는 컨셉으로 태어난 도심형 컴팩트 SUV이자 UX의 전기차 모델이다.

UX 300e는 세련되고 강렬한 외관,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 대비 넓어진 트렁크 공간, 리어 퍼포먼스 댐퍼, 쉬프트 바이 와이어(shift by wire)가 탑재된 간결하고 정확한 변속 기능, 확대 적용된 언더커버를 통한 정숙한 드라이빙 등이 특징이다.

또 가속음이 없는 전기차의 속성 보완을 위해 가속페달 조작과 주행 모드에 따라 다른 사운드를 제공하는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ASC)을 통해 보다 재미있고 안전한 운전을 지원한다고 렉서스는 전했다.

UX 300e에는 54.35㎾h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돼 실용적인 도심 주행이 가능하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는 233㎞(상온 복합 기준)이며, 충전 시간은 DC차데모 급속 기준 0%에서 75%까지 약 50분이 소요된다. 0%에서 100%까지는 약 80분이 소요된다. 아울러 배터리 냉난방 시스템과 과충전 방지 시스템, 다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렉서스 클라이밋 컨시어지 및 전 좌석 독립 열선, 앞좌석 통풍 시트,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등 편의사양도 강화됐다.

예방 안전 기술 패키지인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LSS+), 앞좌석 멀티 스테이지 에어백을 포함한 총 10개의 에어백 탑재 등 안전사양도 강화했다.

렉서스 UX 300e의 판매가격은 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기준 5490만원이다.

◇최초 PHEV 모델 탄생…뉴 제너레이션 2세대 NX=뉴 제너레이션 NX는 기존 NX의 2세대 완전 변경 모델이다. 렉서스 최초의 PHEV 모델인 NX 450h+ 프리미엄과 NX 450h+ F SPORT를 비롯해 하이브리드(HEV) 모델인 NX 350h 프리미엄과 럭셔리 등 총 4개의 트림으로 출시된다.

뉴 제너레이션 NX는 렉서스 GA-K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돼 길어진 휠 베이스, 저중심 및 최적의 무게 배분을 구현했다. 새로운 U자형 패턴으로 바뀐 스핀들 그릴, 가로형 라이트바와 레터링 로고 등을 통해 차세대 렉서스 디자인을 선보인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테리어는 승마에서 영감을 얻은 '타즈나'(Tazuna) 컨셉으로 개발돼 고삐 하나로 말과 소통하듯 차량과 운전자가 일체감을 이루는 레이아웃으로 설계됐다.

여기에 렉서스 최초로 14인치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다양한 편의기능을 쉽고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고, 버튼식 개폐 시스템인 'i-래치'(e-Latch)가 적용돼 승하차도 편해진 게 장점이다.

파워트레인에는 고효율 2.5ℓ 4기통 엔진이 적용돼 NX 450h+는 시스템 총 출력 307마력, NX 350h는 시스템 총 출력 242마력의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NX 450h+는 1회 충전 전기 주행 거리가 약 56㎞(복합전비 기준)에 달해 전기차(BEV)와 하이브리드(HEV) 모드를 넘나드는 다양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강화된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LSS+)와 함께 도로 표지판 어시스트(RSA)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예방 안전사양도 한층 향상됐다.

이밖에 뉴 제너레이션 NX는 '렉서스 커넥트'(LEXUS CONNECT)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렉서스 커넥트는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교통 정보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차량 소모품 교체 알림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한다.

렉서스코리아 관계자는 "렉서스의 전동화 비전인 '렉서스 일렉트리파이드'의 시작을 알리는 뉴 제너레이션 NX와 렉서스 최초의 순수 전기차인 UX 300e를 선보이게 됐다"며 "강화된 상품성으로 돌아온 두 모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사님 '니로 택시'로 바꾸세요"

기아가 첫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니로 플러스'의 사전계약을 개시했다. 사진은 캠핑을 즐기는 고객을 위한 전용 패키지 모델.

기아, 목적 기반 모빌리티 '니로 플러스' 택시·여가용 사전 계약
택시 모델, 고전압 배터리 10년·30만㎞ 보증 '업계 최장'
법인 6000만원 상당 100㎾급 급속 충전기 최대 4대 무상
캠핑 패키지·평탄화 보드 등 캠핑 고객 맞춤 서비스도 제공

기아는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인 자사의 첫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니로 플러스'의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니로 플러스는 2018년 출시된 1세대 니로 전기차(EV)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파생 PBV로, '올인원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택시 전용 모델과 업무·여가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법인 모델 등 2가지로 출시된다.

기아는 사전 계약에 맞춰 택시 고객을 위한 맞춤 충전 서비스를 공개했다.

먼저 기아는 주행거리가 긴 택시의 특성을 고려해 니로 플러스 택시 모델의 고전압 배터리를 업계 최장인 10년·30만㎞까지 보증한다.

또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배터리 리퍼비시 서비스를 선보인다. 배터리 리퍼비시 서비스는 보증기간이 끝났거나 사고 등으로 배터리를 유상으로 교체해야 할 경우 새 배터리의 3분의 1 가격에 신품급 재생 배터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아는 택시 고객의 충전 비용 부담을 덜어줄 서비스로 전기차를 운영 중인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멤버십 '기아 EV멤버스'를 출시한다.

기아 EV멤버스 회원에게는 별도의 가입 없이 충전이 가능한 '충전 로밍' 서비스와 월 최대 1400㎾까지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충전 요금제 '기아 그린패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법인 택시 고객을 대상으로도 니로 플러스 택시 구매 대수와 상관없이 6000만원 상당의 100㎾급 급속 충전기 최대 4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충전 요금은 환경부 표준 급속 충전 요금보다 저렴한 278원/㎾h다.

이밖에 캠핑을 즐기는 개인 고객을 위한 전용 패키지도 마련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항상 적재해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기획된 캠핑 패키지는 트렁크 공간을 적게 차지해 편의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트렁크 공간을 줄여 실내공간을 넓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능과 러기지 멀티 수납트림, 평탄화 보드 등도 탑재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

토요타코리아 홍보 모델들이 정통 스포츠카 'GR86'을 선보이고 있다. GR86은 2012년 출시된 'TOYOTA 86'의 후속으로 GR수프라와 함께 토요타 가주레이싱을 대표하는 모델이다.

토요타 정통 스포츠카 'GR86' 출시

토요타코리아가 정통 스포츠카 'GR86'을 출시한다.

16일 토요타코리아에 따르면 GR86은 2012년 출시된 'TOYOTA 86'의 후속으로 GR수프라와 함께 토요타 가주 레이싱을 대표하는 모델이다.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의미의 '펀 투 드라이브'(Fun-to-drive) 모토 아래 별도의 튜닝을 하지 않아도 서킷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를 위해 르망 24시 4연패와 WRC 우승에 빛나는 토요타 가주레이싱의 엔지니어, 드라이버가 차량의 개발과 튜닝에 직접 참여한 게 특징이다.

GR86은 강력해진 2.4ℓ 자연흡기 수평 대향엔진을 도입해 엔진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부드러운 가속을 완성했다. TOYOTA 86 대비 배기량이 400cc 높아져 고회전 영역의 가속력과 응답성이 좋아졌으며, 6단 수동 변속기는 클러치 용량과 기어의 강도를 높여 더 높은 출력과 가속력을 선사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밖에 저점도 오일을 적용해 부드러운 변속감도 실현했고, GR86 전용으로 개발된 신규 FR 플랫폼은 차량 전체의 무게중심과 운전자의 힙 포지션을 낮출 수 있게 해 코너링과 고속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서킷 주행 시 드라이버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하고 동시에 차량의 스핀을 억제하는 트랙 모드가 도입돼 상황에 맞게 운전을 조작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차량 하부에는 구조물을 추가해 비틀림 강성을 높이고 차량 곳곳에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해 경량화했다.

외관 디자인에는 토요타 가주레이싱의 모터스포츠 경험을 반영한 에어로다이내믹 설계로 공기역학 성능이 반영됐다. 전면에는 GR 엠블럼, GR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G 매시그릴'이 적용됐고, 측면의 유선형 실루엣과 날렵한 이미지의 오버행에서도 스포츠카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다고 토요타코리아는 전했다.

GR86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 스탠다드 4030만원, 프리미엄 4630만원이다.

한편 토요타코리아는 6월 중순부터 프론트 범퍼 스포일러, 사이드 스커트, 리어 범퍼 스포일러, 트렁크 스포일러 등 GR86 전용 액세서리도 판매할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GGM, 직원 상시 채용제 운영 오늘부터 접수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일반직 경력사원과 보전부, 시설관리부 기술직 신입사원 선발을 위해 상시채용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직은 차장(관련 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 과장(7년 이상), 대리(4년 이상)를 대상으로, 기술직은 보전부·시설관리부 신입사원이다.

상시채용은 짧은 기간에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는 공개 채용과 달리 언제나 입사 지원이 가능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도 신속하고 적정한 채용이 가능하다.

GGM은 일반직 신입사원과 보전부와 시설관리부를 제외한 기술직 전 분야는 기존과 같이 공개 채용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상시채용의 지원 접수는 17일부터 가능하며 특정 직무의 직원 채용이 필요할 경우 별도 채용공고를 게시하지 않고 사전에 등록된 지원자에게 인공지능(AI) 역량 검사 코드를 발송해 AI 역량검사를 하고 서류전형, 면접전형,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상시채용 역시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한다.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과 AI 역량 검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해 구직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입사지원은 GGM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박광태 GGM 대표이사는 "공개 채용에 이어 상시채용을 운영해 우수 인재 확보와 신속한 채용이 이뤄져 현장 인력 지원과 생산 목표 달성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 확보는 물론, 상생과 최고 품질로 올 생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구독형 전기차 충전 요금제 '럭키패스 H' 출시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고객 대상으로 구독형 전기차 충전 요금제 상품 '럭키패스 H'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럭키패스 H'는 가입한 고객이 매달 일정 비용을 내면 약정한 충전량 한도 내에서 충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고객은 구독료와 약정량에 따라 '럭키패스 H Green +'(월 구독료 3만원, 월 약정량 1200㎾h), '럭키패스 H Light +'(월 구독료 1.5만원, 월 약정량 400㎾h)등 두 가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주행거리 기준으로 '럭키패스 H Green +' 이용 시 연 주행거리 7만2000㎞까지, '럭키패스 H Light +' 이용 시 연 주행거리 2만4000㎞까지 충전요금이 할인된다.

고객은 제휴사인 에스트래픽의 급속 충전기 이용 시 충전 요금의 50%를, 한국전력과 환경부의 급속 충전기 이용 시 각각 20%와 5%를 할인을 받는다.

에스트래픽과 한국전력의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약정량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충전 요금의 10%가 할인된다.

현대차 전기차 고객이면 누구나 마이현대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구독형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